

# brilliant memories: artwork by 에브리웨어

싼타페 그리고 프로포즈



## 에브리웨어 - 메모리얼 드라이브

에브리웨어의 <메모리얼 드라이브>는 자동차 운전대 앞에 사람이 앉아서 앞을 바라볼 때, 전방에서 입체 사진들이 순차적으로 밀려 나오도록 설계된 키네틱 작품입니다. 보는 이의 눈앞으로 밀려오는 사진들은 사연을 전한 고객 부부의 과거사를 기록한 여러 종류의 사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 <메모리얼 드라이브>의 포인트는 단지 역동성을 지닌 키네틱 조형물이라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작품의 포인트는 사연을 전한 고객이 작품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한 데에 있습니다. 조형물에 있기보다, 고객을 작품에 참여하게 만든 구성에 있습니다.

미디어 아티스트 에브리웨어는 그동안 특히 인터랙티브 미디어 작업, 즉 관객의 참여로 인해 작품의 의미가 발생하는 작업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이처럼 작품과 관객 사이의 상호 교류를 창작의 주요 동기로 삼은 만큼, 에브리웨어의 이번 작품도 관객이 참여합니다.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사연을 전한 고객 부부가 공연장에 초대되고, 함께 객석에 앉았던 남편이 아내 몰래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무대에 조명이 들어올 때 남편이 무대 위에서 아내를 바라보며 지난 사연을 고백하는 공연 형식의 작품입니다. 남편은 관객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연기자로 변신한다. 무대 위에 나란히 선 부부는 <메모리얼 드라이브>의 운전석에 앉아 지난 과거, 그들이 차와 함께 했던 추억을 스크린을 통해 순차적으로 관람하게 됩니다. 관객참여 작품의 특성상, 자신들의 지난 추억을 작품을 통해 재회한 고객은 그들만이 아는 고유한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글 · 반이정



[brilliant memories] 작가 에브리웨어 인터뷰 & 메이킹

사연 소개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구매했던 자동차는 대학교 선후배 인연으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면서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삶을 꾸리기 위해, 꿈을 이루기 위해, 젊은 시절 수없이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전국을 누볐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한 부부에게 ‘싼쇼’는 각별한 존재입니다. ‘싼쇼’는 먹고 자고, 그리고 아내에게 프리포즈를 했던 차의 애칭입니다. 프리포즈 당시, 차 안에 풍선을 가득 넣고 영화 ‘러브액츄얼리’의 스케치북 이벤트를 선물했던 그는 아내 몰래 두 번째 프리포즈를 준비합니다.

## 작가 에브리웨어



### 작가 인터뷰

저희도 부부 작가로 함께 오랜 시간 활동해 왔기 때문에, 이도엽씨 부부 사연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작업했습니다. 저희에게도 연애 시절 낭만과 부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매 순간을 함께했던 자동차를 떠나 보냈던 아쉬운 순간이 있었으니까요. 두 분께 좋은 선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 들여 만든 작품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추억 만들며 행복하시길 바라요!

### 프로필

미디어 아티스트 그룹 에브리웨어(Everyware)는 뉴미디어 테크놀로지와 예술의 접점에서 현실과 가상, 인간과 기계의 공존을 탐구합니다. 방현우는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학부, 박사를 졸업하고, 허윤실은 UCLA 디자인 미디어아트에서 석사를,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에서 학사와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일본 동경국립미술관, 오스트리아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센터, 영국 빅토리아 앤 알버트미술관 전시회에 초대되었습니다.